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국내편 (5)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통영 =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골목길 담벼락에 그림 옷 입히니 명품 '벽화마을' 관광객들 '웃음꽃'

지난해 4월 통영국제음악제를 관람하는 길에 잠시 들른 동피랑 벽화마을은 조금 실망스러웠다. 전국적으로 소문난 벽화마을치고는 직직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화사한 벽화를 기대했던 예상과 달리 크고 작은 담벼락에는 균열이 생기고 색이 바래 일부는 흉물이나 다름없었다. 만약 동피랑 벽화마을만 보려고 통영을 찾았다면 속상할 뻔했다. 다행히 인근의 전혁림 미술관과 박경리 기념관, 시인 김춘수 유품전시관과 같은 볼거리들이 있어 동피랑 벽화마을에서 느낀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지난달 중순, 1년 만에 다시 찾은 벽화마을은 그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120여 점의 신작 벽화들은 화사한 이미지와 역동적인 에너지로 관광객들을 사로잡았다. 방금 물감을 칠해 놓은 듯한 아름다운 풍경과 소박한 인물들의 표정은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마을 입구에서 5분 정도 걸어가다 만나는 동피랑의 아이콘 '날개'(김주희·김형진 작) 앞에는 수십여 명의 관광객이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했다. 마침 '새웃'을 갈아 입고 있었던 '날개'는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 오를 것 같았다. 특히 동피랑 마을 한편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추모의 벽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글들을 가득 채워져 숙연함을 더했다.

이처럼 동피랑 벽화마을이 1년 사이에 몰라 보게 달라진 데에는 '벽화 비엔날레'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는 벽화의



지난 2007년 통영의 쇠락한 달동네였던 동피랑 마을은 담벼락에 시민과 작가들이 함께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다.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김주희·김형진 작가의 '날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묘안이다. 그렇다고 광주비엔날레처럼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매회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통영과 주민들의 삶을 주제로 한 소박한 '작품'을 마을에 내건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자 통영시는 올해부터 1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국내외 작가의 작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에만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다녀가는 성황을 이뤘다.

'한국의 몽마르뜨' 1일 관광객 3천여명

동피랑은 통영의 대표적인 활어시장인 중앙시장 뒤쪽 언덕에 자리한 마을로 '동쪽의 벵골(비탈)'이라는 뜻이다. 시장 입구에서 200m 골목길을 따라 언덕에 오르면 다다락다 불은 담벼락마다 그려진 형형색색의 벽화가 눈길을 끈다. 동피랑을 찾는 관광객들은 강구안 바다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전망좋은' 언덕에서 담벼락의 예술작품과 골목길의 속살을 들여다 보는 색다른 즐거움을 느낀다. 짧은 시간이지만 파리의 몽마르뜨가 부럽지 않을 만큼 하루 평균 3000여 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 물론 여기에는 통영의 자연경관과 문화명소들의 시너지 효과를 빼놓을 순 없다.

하지만 불과 7년 전까지만 해도 동피랑 마을은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달동네였다. 그즈음 통영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동피랑 일대를 공원으로 재개발하자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았다. 동피랑의 꼭대기에 자리한 이순신장군이 만든 통제영의 망루(동포루)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통영시는 동피랑에 거주하던

80세대에게 각각 1000만원의 보상금을 내밀며 이주를 제안했다. 그러나 새 거처를 마련할 길이 없었던 일부 세입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시와 주민사이에 갈등이 커지자 '푸른 통영21 협의회'(푸른 통영 21)가 중재에 나섰다. 당시 '의제21'을 이끌고 있었던 박윤규 현 '푸른 통영 21' 사무국장 등 몇몇 활동가와 주민들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람을 내쫓는 건 비인간적인 일"이라며 통영시를 설득했다. 가까스로 재개발 철화를 이끌어낸 '푸른통영 21'과 주민들은 '문화재 복원이나 비탈마을 살리기'의 사이에서 고민하다 '오래된 마을 골목을 문화재로 만들자'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오로지 낡고 지저분한 담벼락이지만 여기에 그림을 그려 산뜻하게 마을을 살리자"는 생각이었다. 벽화마을의 탄생은 이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막상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줄 곳이 없었다. 그때 마침 문화관광부가 공모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이들에게 구세주와 같았다. 푸른 통영 21은 공모사업에서 3000만 원을 따낸 후 부족한 경비는 인터넷으로 예술가부 자원자들을 불러 들여 벽화를 그렸다. 벽화가 내걸린 마을은 산뜻하게 변신했고 당시 KBS TV의 '다큐 3일'을 통해 이 사연이 방송되면서 일약 동피랑은 전국적인 명소가 됐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2년이 지나자 여기 저기 벽화의 칠이 벗겨지고 색이 바래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방안이 필요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2년마다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격년 벽화전', 비엔날레였다.

동피랑이 유명세를 타면서 정작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잖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일부 관광객들이 불쑥 문을 열어 기웃거리는 가 하면 노래를 부르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소음

과 사생활 침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참다 못한 5가구는 동피랑 마을을 떠나기도 했다. '푸른 통영 21'은 불편을 감수하는 대가로 보상을 하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지난해 3월 생활협동조합 '동피랑 사람들'을 창립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 창출을 목표로 내건 '동피랑 사람들'은 안전행정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애물단지 달동네의 변신... 벤치마킹 1순위

주민 80가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동피랑 사람들'의 운영은 10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에서 맡는다. 푸른 통영 21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통영시와 마을주민들을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에 주력한다. 동피랑 마을의 꼭대기에 위치한 '동피랑 전망'과 '동피랑 구판장' '할머니 바리스타가 만드는 커피점' 등을 운영해 수익금을 주민에게 되돌려 준다. 또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동피랑만의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상품 디자인, 홈페이지 등을 구축했다. 동피랑 마을의 벽화 그림 소유권은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만큼 타 지역에서 도용·이용할 수 없다는 이점을 살려 동피랑만의 특유한 상품 개발에 나섰다. 전국 관광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기념품을 지양하고 동피랑에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독특한 제품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기념품을 파는 '동피랑 전망'의 경우 한달 평균 매출액이 1500만원에 이른다. 이 수익금으로 조합원 80가구에 쌀과 상하수도세 등으로 1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처럼 동피랑 벽화마을이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에서 약 100여 개의 벽화마을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하지만 동피랑처럼 성공을 거둔 사례는 손을 꼽을 정도다. 무엇보다 지속성이 떨어지는 데다 주민들과의 갈등이 벽화마을의 정착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동피랑의 '얼굴'로 자리잡은 김주희 작가의 '날개'가 좋은 예다. 지난 2008년 서울 이화동 벽화 골목의 담벼락에 선보인 '날개'는 KBS TV의 '1박2일'에 소개된 후 관광객들이 몰려 들면서 집주인은 엄청난 소음에 시달렸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소음에 시달린 집주인은 급기야 삭제를 요구했고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받아 줄 곳을 찾던 끝에 지난 2010년 동피랑에 등지를 떠났다.

정상일 '푸른 통영 21'의 교육지원팀장은 "푸른통영 21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마을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데다 벽화 주제에 대해서도 작가와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 제작하는 점이 동피랑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면서 "'날개' 역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불편사항을 함께 풀어가서 '커뮤니티 정신' 덕분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동피랑 벽화마을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2년에 한번씩 '벽화 비엔날레'를 개최한다.



문화재인 동포루를 보존하기 위해 개발 대신 재생을 선택한 동피랑 벽화마을 전경.

/jhpark@kwangju.co.kr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특허 제10-1097784호
제10-0562035호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Building Engineer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0년은 가는데!!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트라이슈머 탑코팅 시공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진숙모텔 뒤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초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